

우리들의 옛 建築과 그 現代化 ①

朴 容 淑

우리들의 옛 사람들이 建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알아내는 일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것 같다. 그것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체로 옛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기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듯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점을 단적으로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많은 화가들이 오랜 세월동안 山水畵나 四君子와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러한 그림에 대해서 무엇인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글은 좀처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建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우리는 수백년 혹은 천여년전에 지은 건축물, 이를테면 사찰건축이나, 궁정건축 혹은 民家들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무엇인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그런 글줄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作品으로서의 건축물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옛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였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갖는 첫번째의 물음은 왜, 옛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조행위에 대해서 그토록 담담하며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쪽을 택하였을까. 물론 여기에서 내가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는 말은 文字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 이를테면 한 폭의 그림을 그렸다면 한 채의 집을 지었다고 했을때,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면 의당히 그러한 창조행위에 대해서 무엇인가 文字에 의한 별도의 修飾이 있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주 불행한 창조물이었을 때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記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란 바로 이러한 修飾이나 記錄에 의해 성립되는 넓은 의미의 비평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옛사람들이 자기들의 창조물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歷史意識에 대해서 도피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意識없이 만드는 행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창조관 역사의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옛 사람들은 한 채의 집을 지을때에 있어서도 결국 단순히 모방하는 행위로만 일관했다는 말인가? 그러나 우리들 시대의 많

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옛사람들이 남긴 창조물에서 그 독창적인 면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그 점은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아시아인의 옛건축은 유럽이나 그밖의 여러나라의 옛건축과는 다르다. 또 그런가하면 아시아속에서도 우리들의 것과 중국인의 것, 혹은 일본인의 것과 비교할 때, 부분적으로는 다른 점을 발견해 낼 수가 있다. 이러한 점만을 문제삼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옛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단순히 모방하는 일로만 일관하였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침묵을 지켰을까? 아니, 왜, 역사의 흔적(비평)을 남기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전통에 대해서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점일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될일은 바로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왜, 옛사람들은 한 채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토록 번거로운 儀式을 가져야 하는가. 또 한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토록 까다로운 조건을 마련하는가. 이를테면 택지, 方向, 바람, 물과 같은 五行上의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되는가. 또 우리는 사찰이나 궁전 건축에서 보듯이 복잡한 여러 裝飾과 색채법, 그리고 지붕이나 처마에서 보는 부드러운 만곡선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 등등의 물음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만족스러운 해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일은 건축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다. 즉 건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분명히 건축이라는 말속에는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主軸이 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람이나 動植物, 혹은 神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偶像이나 觀念形態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산다는 것을 위해서 짓는 일종의 造形行為인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정의가 무의미해 질 때가 있다. 건축의 개념이 무엇인가 애매모호해 질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럴 경우이다. 이를테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나 造形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이 흔히 일컫는 기념탑이나, 정자(亭子)같은 것, 또 더러는 彫刻品에 해당하는 그러한 집이나 造形物들은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은 아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것들마저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 면 사실상 건축이라는 개념은 여러가지로 애매하게 지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의 개념을 實用性和 意味性으로 구체화하는 일은 여러모로 유익하다할 것이다. 그럴것이 앞에서 지적된 그러한 애매모호함도 결국 이 두개의 개념에 의해서 정리될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되어야 할 것은 이 두개의 개념이 결코 제각기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相互志向的인, 이를테면 그것은 하나의 意味体系를 이루는 개념들이다. 즉 한개의 건축물은 반드시 實用性和 意味性을 동시에 지닌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건축에 있어서의 「構造主義」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건축이 어떻게 實用化되는가에 대해서 아는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이 어떻게 意味를 전달하게 되며 또 어떠한 의미를 주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우리가 옛 건축에서 알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아는바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바이지만 意味性은 반드시 실용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실용성 역시 意味性과 結付되어 있다. 흔히 構造主義자들이 즐겨 쓰고 있는 「意味하는 것」과 「意味당하는 것」의 二重構造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테면 의미성이 「意味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實用性은 「意味당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建築認識에 있어서의 이러한 二重性은 옛 건축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건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한 채의 住宅을 예로 들어보자. 住宅은 어김없이 人間이 日常生活을 하기 위한 하나의 實用性的 道具이다. 그 속에서 사람은 안전하게 자고 먹고 쉬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을 읽는다던가 약간의 家内勞動도 겸한다. 그러므로 한 채의 주택은 그러한 인간의 日常的인 욕구에 응해줌으로서 하나의 實用性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住宅에 별다르게 意味性이 부여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확실히 우리들은 住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령, 社宅, 國民住宅, 庶民住宅, 民營아파트, 豪華住宅, 公務員아파트, 판자집등 이러한 이름의 住宅들은 어김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實用性的 道具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히 實用性的 道具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意味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판자집은 가장 가난한 자의 住宅道具이므로 그것은 住宅地라는 實用性 이외의 「가장 가난한 者」라는 修飾의 의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호화주택인 경우에 더욱 분명해진다. 그럴것이 호화주택이라는 修飾은 확실히 道具의 의미를 넘는 것이다. 건축이 道具의 實用性을 넘을 때, 우리는 흔히 그로부터 건축에 있어서의 히에라르기적 狀況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확실히 住宅에 있어서 이러

한 호화스러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히에라르기적 意味性을 갖게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가령 公務員住宅이나 혹은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것은 단순히 住居한다는 即自的인 手段으로서가 아니라 「누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하는 색다른 의미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建築的認識에 있어서의 이러한 構造性은 어느 時代에나 共通되는 것이므로 나는 이러한 原理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들의 옛 建築을 말하여 보고자 한다.

2.

우리들의 옛 建築을 말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지양해야 할 일은 建築作品을 部分的(分節化)으로 이해 할려는 경향이다. 이를테면 寺刹建築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옛 建築의 本質을 축출해 내려고 한다던가, 혹은 宮城建築이나 民家, 또는 草家와 같은 建築만을 토대로 해서 우리것의 本質을 축출해 내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方法은 결국 장님이 코끼리 진단하는 愚를 범하게 되는 것임은 물론이지만 結果的으로 建築의 진정한 意味를 理解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을 만드는 일이 된다. 앞에서 이미 指摘한바이지만 어느 時代에나 한개의 建築物은 최소한 두개의 意味, 즉 하나는 實用性이며, 다른 하나는 意味性이다. 이러한 二重構造는 결국 建築物이 스스로 個性을 지니는 동시에 또한 全體性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즉 어떠한 建築物이든 그것은 그 하나로서 完結性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全體로 向해 어떤 關聯性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建築을 分節的으로 理解하고자 할 때, 거기에 重大한 誤謬가 있게 된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이를테면 하나의 寺刹은 결코 그것이 당대에 存在하였던 如他の 建築物, 말하자면 宮殿建築, 民家, 草家와 같은 建築物과 전혀 무관하게 完結된 建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寺刹建築의 形態나 位置, 더욱 그러한 建物이 지니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특수한 裝飾을 봐서도 알수 있는 일이다. 특수한 裝飾이란 곧 특수한 修飾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한 修飾은 本質的으로 意味性的인 自覺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重要的 것은 이러한 自覺은 本質的으로 他者를 意識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建築이 他建築과의 關聯性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新羅時代에 있어서 民家の 建築은 그 間數나 디딤들의 屈數를 身分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寺刹建築은 그 丹青에 있어서 엄격하고 장중한 意味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建築이 복잡한 히에라르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는 기와집과 초가집도 그러한 히에라르기적 질서에 따라 樣式化되었음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建築의 狀況은 그것이 모두가 宗教的, 혹은 政治的인 어떤 世界觀에 의해 相互志向的으로 얽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의 世界像, 이른바 體系를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1390년에 「權近」이 지은 「入學圖說」이라는

책의 諸侯昭穆五廟都宮圖 해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

〈昭穆의 說에 대하여는 朱子가 或問중에서 상세히 논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자들이 혹 이것을 살피지 못할까하여 이 圖表를 그려 그 대략을 보인 것이다. 그밖에 廟는 다 南向이고 神主는 반드시 동향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의의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람되어 여기에 一室圖를 만들어 부가하였다. 二世의 遷(通遷)되는 신주는 의당 동쪽의 협실(夾室)에 모셔야 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或問에서 서협실(西夾室)에 모신다고 한 것은, 동쪽이 높운데다 태조의 앞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여 태조의 뒤에 모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서협실에 모시지만 역시 소목의 차례에 쫓아야 한다.〉(權德周訣 乙酉文庫一三一)

이 글은 물론 神殿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神殿이 우리들의 옛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글은 우리들의 옛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건축이 결코 分節的으로 理解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확증해 준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테면 「權近」은 실제로 자기의 저서에서 이른바 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를 그려 보이고 있다. 그 그림에 따르자면 한 개의 건축물은 그것이 결코 完結體가 아니라, 한개의 個性, 즉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存在하여, 그러한 存在方式이 결국 하나의 体系로서의 建築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建築群은 오늘날 우리들이 都市디자인을 말할 때 有機體를 문제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次元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만 兩者間에 있어서의 그러한 有機體的 秩序는 한쪽이 神의인 것이며 다른 한쪽이 人間的인 것이라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건축을 個別的으로 감상하거나 비평하려는 입장을 단호히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들의 옛 건축을 말할 때 의례히 有機體로서의 建築體系를 무시하고 단순히 分節된 건축을 말하는데 머물고 말았다. 그러한 結論은 건축을 단순히 審美的인 눈으로, 이를테면 心理學的인 관찰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건축적 본질에 접근하려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建築的認識은 물론 西歐人의 近代의 습관에 의한 것이므로 오랜 동안 우리는 서구인의 안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옛 건축을 보아온 셈이다. 그러한 결과 우리들의 傳統은 보잘것 없는 것으로 왜곡되고 또 짓이겨져왔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노·타우트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비극을 한결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르노·타우트”가 日本建築에 대해서 내린 비평, 가령 桂離宮과 東照宮에 대한 그의 의견은 日本人에게 있어서 더 말할나위가 없겠으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거의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건축

적 상황을 하나의 文章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分節的으로 이해하려는 方法을 正当化시킴으로써 옛 건축에 있어서 절대 除外될 수 없는 本質的인 것을 목살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타우트”에게 있어서는 一次的으로 建築은 心理的인 혹은 審美的인 對象이며 따라서 그 건축이 지닌 實用性이나 또한 意味關聯性에 대해서는 거의 無關心이다. 桂離宮이나 東照宮을 하나의 線塔스로서가 아니라, 토막난 것으로 각각 감상하는 태도는 확실히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을 실증해 보이는 것이 된다. 이를테면 그는 桂離宮이나 伊勢宮에 대해서 超理性的이며 單純, 清楚, 明證, 簡淨과 같은 美를 발견하는 대신에 東照宮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로 過度의 裝飾과 淨華의 美 이른바 專制者藝術의 極致로 보는 것이다. 즉, “타우트”에게 있어서는 東照宮보다는 桂離宮이나 伊勢宮이 보다 더 훌륭하며 따라서 그러한 건축을 지은 小堀遠州와 같은 建築家가 당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가 東照宮보다도 桂離宮쪽을 훨씬 더 훌륭한 건축으로 보는 것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있게 된다. 틀림없이 그것은 現代유럽인의 精神史的 遍見, 이를테면 藝術作品을 心理的 對象으로서만 觀望하려는 그러한 立場을 그도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는데로 이끌고 간다면 틀림없이 칸트나 혹은 “하이데카”의 美學이 지니는 그러한 독일적인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만한 것이다. 물론 이 원고에서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며 또 그럴만한 계재도 못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桂離宮과 東照宮은 同時代의 建築이면서도 그렇게 판이한 價值評價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바꾸어 말해서 桂離宮은 소탈하고 淸淨한 대신에 東照宮은 專制的이고 過慾的인 것이어야 하는가. 분명히 桂離宮과 東照宮은 同時代, 이른바 하나의 文章으로 이해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것들이 하나의 文章으로 이해되는 建築이라면 “타우트”의 建築的認識에는 커다란 誤謬가 있음이 發見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桂離宮과 東照宮은 단순히 對比로서가 아니라 意味關聯으로서 이른바 共時態的인 視角으로서 비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우트”의 見解는 당연히 비판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옛 建築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보다 나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우리들의 옛 建築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미 “타우트”의 경우를 들어 비판한 바 있지만 결국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은 建築의 文章性, 이른바 意味 關聯(綱)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課題는 물론 建築的視野만으로서 解決될 수 있는 問題는 아니다. 우리가 이 問題에 對해서 바람직한 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도 광범위한 視野, 이를테면 傳統文化에 대한 多角的

인 視点과 그 理解가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옛 建築이 존재하던 시대에 있어서의 全体的인 世界觀이 들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古代的 世界觀을 규명하는 일은 '人類學的인 어프로치로 인해 얻어지는 여러 分野의 성과가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古建築을 인식하고자 할 때, 한결같이 建築의 背景思想, 이른바 世界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儒敎와 佛敎였다. 그러나 이때의 유교나 불교가 古建築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크게 作用하지 못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事實이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筆者가 생각하기에는 儒敎나 佛敎에 대한 理解가 진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一般的으로 우리들의 옛 宗教에 對한 認識도 앞서 指摘했던 建築에 대한 理解와 마찬가지로 分節的인 것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儒敎와 佛敎는 전혀 別個의 것으로 理解하려는 傾向이며 실령 儒敎와 佛敎를 함께 理解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對比의 입장에 머무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되풀이 천명하는 바이지만, 佛敎나 儒敎도 하나의 文章으로서 理解할 必要가 있다. 일찌기 新羅末의 碩學 이었던 崔致遠은 儒佛仙의 三敎合一의 종교를 말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종교가 古代 朝鮮에 있었다고 갈파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儒敎나 佛敎가 源泉的으로 혹은 原形的으로 하나의 體系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建築을 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 보다도 重要的 點은 이러한 여러 宗教, 이를테면 儒敎, 佛敎, 道敎와 같은 高等宗教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建築은 事實上

인간의 삶과 함께 存在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重要的 事實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준다. 우리들의 옛건축은 單純히 어느 特定の 宗教思想에 의해 說明되어서는 안 된다는 事實이다. 이를테면 宮城建築인 境遇에는 반드시 儒敎思想이 그 理解의 열쇠가 된다거나 또는 寺刹建築의 경우에는 佛敎思想이 그 理解의 열쇠가 되는 것과 같은 部分的인, 바꿔 말해서 토막 토막의 理解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原理는 우리들의 古建築이 모든 옛 宗教의 體系, 이른바 陰陽五行이라는 하나의 全体的文章속에서만 理解可能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작 問題되어야 할 것은 陰陽五行思想이다. 그것은 陰陽五行思想이 모든 옛 종교에 있어서 하나의 共通分母가 되기 때문이다. 事實上 儒敎思想의 基本的인 바탕도 陰陽五行에 있으며 道敎나 佛敎思想도 예외없이 그 바탕에는 陰陽五行思想이 깔려있음을 우리는 發見하게 된다. 아마 이러한 展望에서 보자면 결국 우리들의 가장 오랜 종교였던 샤머니즘(三皇五帝)도 결국 음양오행에 의해 조직되어졌다는 사실에 쉽게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일은 陰陽五行思想과 우리들의 古建築이 어떤 관계, 이를테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의 文章을 이루고 있는가를 아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陰陽五行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世界像인 샤머니즘(三皇五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계속)